



“풍선에 소망 띄워요” 제5회 고려인의 날인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늘푸른공원에서 열린 ‘고려인 주민 한마당’행사에서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과 시민들이 희망의 풍선을 날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급식 납품로비 조사... 일선학교 ‘초긴장’

### 교육부 전국 3197곳 조사

### 광주·전남 270곳 이주부터

### 행정실 관계자·영양사 등

### 사안따라 무더기 징계 불가피

교육당국이 식재료 업체에서 상품권 등의 납품 로비를 받은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지역 270여개 학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자칫 영양사, 교직원 등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교육부와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주부터 전국 학교 급식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업체 납품 로비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한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학교 명단을 일선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역 초·중·고 100여곳, 전남지역 170여곳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캐시백 형태의 현금성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서 조사

대상 학교만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 조사가 이뤄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학교는 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대상, CJ프레시웨이, 동원F&B,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 등 대형 식품업체와 거래한 곳이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 수는 대상이 3197곳, CJ프레시웨이 727곳, 동원 F&B 499곳, 푸드머스 및 10개 가맹사업자 148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2~2016년 백화점·마트·커피전문점·극장 등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 15억여원에 달하는 로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급식 관계자가 학교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인 만큼 조사 대상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고 사안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부정징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징계 수위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학교와 인원이 방대한 데다 관리자 중에는 정규직 공무원뿐 아니라 영양사와 급식조리사 등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돼 조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일부 조사 대상 학교의 경우 1만원 미만 현금성 포인트를 받는 곳도 있는데다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다수여서 조사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6월로 다가온 차기 교육감선거도 교육청이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희기자 golee@

# 보건교사 없는 전남 단설·사립유치원

### 139곳 중 배치 1곳 뿐...신속 치료·보건 교육 등 ‘구멍’

전남 지역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가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들이 수업 도중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적절한 의료조치를 못해 화(禍)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현재 단설(23곳)·병설(413곳)유치원과 사립유치원(116곳)은 모두 552곳이다. 이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유치원 수는 전체의 42.39%인 234곳이다. 세부적으로 단설유치원 0곳·병설유치원 233곳(56.42%)·사립유치원 1곳(0.86%) 등이다. 단설과 병설 유치원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교육기관으로, 단독으로 운영되느냐 초등학교에서 함께 운영하는냐에 따라 단설과 병설로 나뉜다.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거의 없는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20조상 유치원에는 교원 회의 촉탁의 사·영양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보건교사는 빠져있다.

단설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마다 보건담당 교사가 지정돼 있지만 이들은 전문 의료지식이 없는 교사들로, 업무만 임의로 배정받은 상태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원생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반면 광주지역 단설 유치원 10곳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사가 전부 배치된 상태다.

초등학교의 경우 쉬는 시간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보건실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단설 및 사립유치원에도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에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명문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 서해해경, 中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본격 조업철을 앞두고 우려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초기 기선제압에 들어간다.

서해해경은 “가을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서해에서 17일까지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 조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현재 서해에 중국어선의 주요 포획 대

상 어종인 조기·고등어·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6일부터는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타방어선 조업이 재개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를 비롯해 허가증 위조,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선박이다. /김종희기자 kimyh@kwangju.co.kr

# 세월호 희생자 이영숙씨 3년만에 목포서 영결식

3년 만에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품으로 돌아온 세월호 희생자 이영숙씨가 목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께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중 한 명이었던 일반인 이영숙씨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이영숙씨의 영결식은 운구차로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을 한 바퀴 돌며, 남아있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현장에서 수습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작업자들에게 인사를 나눈 뒤 목포신항을 떠났다. 영결식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이영숙씨의 아들 박경태(31)씨는 친인척이 있는 부산으로 이동해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삼일장을 치렀고 15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고인을 화장 시킨 뒤 인천가족공원에 마련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이영숙씨를 안치시켰다.

세월호 희생자 이영숙씨는 지난 2014년 4월16일 당시 제주도로 이사를 계획한 아들 집을 신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씨의 유해는 지난 5월22일 세월호 3층 선미 좌현 객실 수색 중 동과 구명조끼를 입은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9    달맞이 02:47  
해진 17:57    달짐 16:10

**일교차 Key**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4/21	보성	흐림	12/18
목포	구름많음	13/20	순천	구름많음	15/20
여수	흐림	15/29	영광	구름많음	12/20
나주	구름많음	12/20	진도	구름많음	13/21
완도	흐림	20/20	전주	구름많음	13/20
구례	구름많음	12/19	군산	구름많음	13/20
강진	흐림	13/21	남원	구름많음	13/19
해남	흐림	13/21	속산도	구름많음	13/19
장성	구름많음	12/20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면바다	북동~동	1.0~3.0	북동~동	1.0~3.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1.5~2.5
	면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면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48	16:59	11:36	--:--
여수	00:40	12:43	06:51	19:08

◇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	☀	☀	☀	☀	☀	☀
13/23	14/19	13/22	11/21	11/22	12/21	12/22

◇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보통
- 피부질환: 보통

**교촌과 함께하는 제2회 순창 치킨맥주페스티벌 순창 발효소스경연대회**

**2nd SUNCHANG Chicken & Beer Festival**

**10월 21~22일 토~일요일**

**장류축제 행사장 일원 (발효소스토콜 원형전시관)**

순창 수제맥주 장안 크래프트 판매합니다

교촌치킨 미니세트 6,000원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    KyöChon